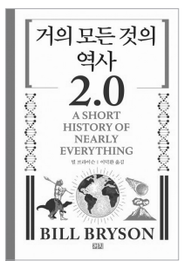
빅뱅부터 인류 문명까지… 최신 과학 성과 담아

거의 모든 것의 역사 2.0

빌 브라이슨 지음, 이덕환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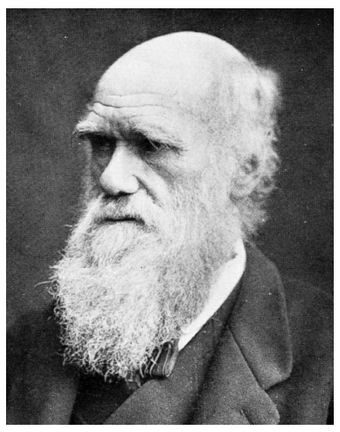
아마도 작가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피식 웃음이 난다면, 빌 브라이슨은 분명 그 중 한 명일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과 유쾌하고 위트 넘치는 독특한 문체는 그의 시그니처로 '나를 부르는 숲', '거의 모든 사생활의 역사' 등의 저서에서 여실히 접할 수 있다. 그래서 빌 브라이슨이 집필한 과학책이라고 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스타일의 책임을 예측할 수 있다.

'21세기 최고의 대중 과학서'로 꼽히는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증보판 '거의 모든 것의 역사 2.0'이 나왔다. 지난 2003년 출간 당시 영국 왕립학회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대중 과학서에 수여하는 어벤티스상과 유럽연합이 선정하는 데카르트상을 모두 받은 화제작이다.

빅뱅에서부터 인류 문명의 출현에 이르기까지를 다룬 책은 장구한 세월 동안 이어진 우주, 지구, 생명에 관한 역사를 탐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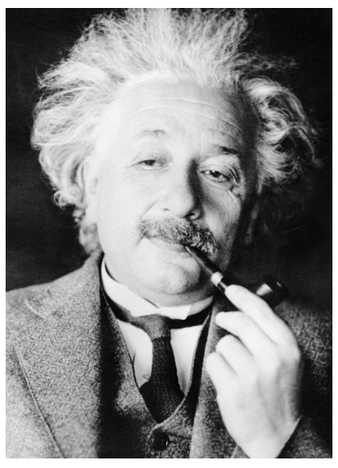
저자가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흥미롭지도, 궁금증을 풀어주지도 않아 과학에 대한 관심마저 떨어지게 만든 학창시절의 '과학 교과서' 때문이었다. 과학과 멀어졌던 그는 성인이 된 후 어느 날 태평양 상공을 나르던 비행기에서 바다를 무심히 바라보다 "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에 대해서 나 자신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놀라울 정도로 어설픈 질문에 대답해줄 인내심을 가진 전문가들"을 찾아낸 그는 5년간에 걸쳐 "과학의 신비로움과 성과에 대해서 너무 기술적이거나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책을 써내려갔다.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 2.0'은 위대한 과학자들을 통해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들려준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스티븐 호킹, 찰스 다윈, 아인슈타인. 〈광주일보 자료사진〉

개정판에서는 지난 2003년 출간 후 20년 동안 이어진 최신 과학적 성과를 상세히 담았다. 저자는 초판을 준비하며 만났던 과학자들과 재회하고 고성능 망원경과 우주탐사를 통해 알아낸 태양계의 비밀 등을 풀어놓는다. 유전학의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초기 인류의 과학적 사실을 언급하고 마지막 고대인류가 머물렀을지도 모를 지브롤터의 동굴을 직접 찾아가 새롭게 밝혀진 이야기도 전해준다.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돼 있다. 1부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빅뱅이론과 태양계의 구조와 생성에 대한 이야기 등 우주에 대한 역사를 다루며 2부에서는 뉴턴의 중력 법칙, 고전물리학과 지질학 등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한 과학을 다룬다.

3부는 현대물리학의 기초인 열역학, 양자론, 상대성이론, 천체물리학, 우주론이 등장한 20세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4부에서는 공룡의 멸종을 일으킨 소행성과 혜성의 충돌, 지진과 화산 등 지구에 대한 과학을 소개한다.

우주에서 생명이 번성하는 유일한 행성인 지구에서의 신비로운 생명 이야기에 이어 마지막 6부에서는 인간이 적응해야만 했던 기후의 역사와 고고인류학과 첨단 생명과학을 통해 들려주는 인류의 출현도 눈길을 끈다.

역자는 이 책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떠올릴 만한 거의 모든 문제를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연결하는 저자의 탁월한 능력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최고의 스토리텔러'로 불리는 빌 브라이슨에게 딱 어울리는 설명이다.

〈까치·2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

새로 나온 책

▲자카르타가 온다(빈센트 베빈스 지음, 박소현 옮김)=1960년대 인도네시아 대량학살을 중심으로 냉전 시기 미국 주도의 반공 전략이 세계 곳곳에서 어떤 폭력을 낳았는지 추적한다. 피해자와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자카르타'가 도시 이름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된 학살의 방식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냉전과 반공주의가 오늘의 세계와 한국 사회에 남긴 흔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두번째테제·2만7000원〉

▲오로라를 따라간 푸트만스 씨(헨드릭 흐룬 지음, 최진영 옮김)=숫자로 세상을 이해해 온 회계사 푸트만스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 12일간의 오로라 버스 여행에 나서며 변화를 겪는 이야기다. 그는 낯선 이들과의 여행 속에서 숫자로는 가늠할 수 없던 온기와 연결을 처음으로 경험한다. 네덜란드 국민 작가 헨드릭 흐룬 특유의 유머와 경쾌한 문장이 어두운 시간을 건너는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넨다.

〈드롬·1만8000원〉

▲창궐(이치호 미치 지음, 민경욱 옮김)=전염병이 퍼진 도시를 배경으로 불안과 욕망이 뒤엉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집. 죽은 친구의 귀환, 배달 앱과 플랫폼 범죄,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폭력, 자살 클럽까지 고립된 인물들 사이로 환상과 폭력이 스며든다. 여섯 편의 이야기는 팬데믹을 지나온 우리가 무엇을 잃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되묻는다.

〈비채·1만7800원〉

▲트럼피디아(이지윤 지음)=도널드 트럼프를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 아니라 일관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전략가로 해석했다. 뉴욕 부동산 사업가 시절부터 체득한 승부의 공식이 정치 무대에서 어떻게 권력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그의 70년 인생을 따라 추적한다. 포퓰리즘과 노이즈 마케팅, 거래의 기술이 대중의 분노와 결핍을 어떻게 정치적 힘으로 전환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짚어낸다.

〈마음의숲·2만2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이마에 알이 생겼어(주아나 바라타 지음, 엔히키 코제르 모레이라 그림, 오진영 옮김)=집 안을 뛰어다니다 꽈당 넘어진 파코의 이마에 동그란 '알'이 솟아난다. 파코는 이 알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알 백과사전 속으로 들어가 상상의 여행을 시작한다. 일상의 작은 사고를 유쾌한 호기심과 상상으로 바꿔내며, 넘어짐과 실수도 즐거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전한다. 〈노란상상·1만5000원〉

▲유자는 없어(김지현 지음)=청소년의 일상과 고민을 당사자의 시선으로 담아낸 성장소설이다. 거제도에 사는 고등학생 지안은 공황 증상과 성적 하락, 그리고 '떠나야 할까, 남아야 할까'라는 질문 앞에서 흔들린다. 친구들과 비대면 영화모임을 이어가며 지안은 조금씩 자신을 둘러싼 기대에서 벗어나려 한다. 비교와 실패 앞에서 주저앉기보다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워 가는 과정이 담담하게 그려진다. 〈돌베개·1만5000원〉

▲치킨 행성의 비밀(남종영 지음)=우리는 매일 같이 먹는 '치킨'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서의 '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환경저널리스트인 저자가 인간과 닭이 함께해 온 300년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K-치킨의 탄생부터 공장식 축산, 인류세까지를 기후 위기와 동물권 문제를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짚는다. 〈창비·1만4000원〉

헤르만 헤세 '유리알 유희'의 모태를 찾아서

동방순례

헤르만 헤세 지음, 육혜원 옮김

헤르만 헤세(1877~1962)는 현대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문인이다.

1946년 '유리알 유희'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소설과 시, 그림을 넘나들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평생 자유와 행복을 추구했던 그는 첫 시집 '낭만의 노래'가 라이너 마리어 릴케의 인정을 받을 만큼 천부적인 문학적 재능을 타고 났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동양철학에 영향을 받아 심미적인 깊이가 투영돼 있다.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유리알 유희'는 고대 유가사상과 도가 사상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데미안'은 초기 기독교 사상 등이 깃들어 있을 만큼 헤르만 헤세의 작품은 동양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유리알 유희'는 미래의 어느 시점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작가가 200년 전 유리알 유희의 명인 자료를 토대로 일대기를 쓰는 내용이 주 서사다. 헤세는 서로 상반되는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특유의 섬세한 문체로 그렸다. 동양과 서양, 욕망과 절제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헤세의 작품 중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특히 '유리알 유희'의 모태가 된 작품으로 거론되는 자서전이 있다. '동방순례'가 그 것. 작품의 기저에 흐르는 주요 모티브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닿아 있다.

최근 발간된 '동방순례'는 헤세가 생전에 '생명을 구해준 책'으로 거론할 만큼 작가의 문학에 있어 이정표가 되는 작품이다. 헤세가 창작의 우울과 답답함을 이겨내기 위해 썼다고 알려져 있다.

헤세는 이 작품을 일컬어 "이것은 결코 귀여운 장안이나 유희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고백이며, 시대에 맞서는 경향들에 대한 호소이다"고 고백한 바 있다.

헤세의 고백처럼 매우 사적인 경향을 띠는 이 작품은 난해한 부분이 적지 않다. 자전적인 독백은 의미를 정치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그 때문이다. 그만큼 해석의 다양성이 내재한 까닭에 독자들마다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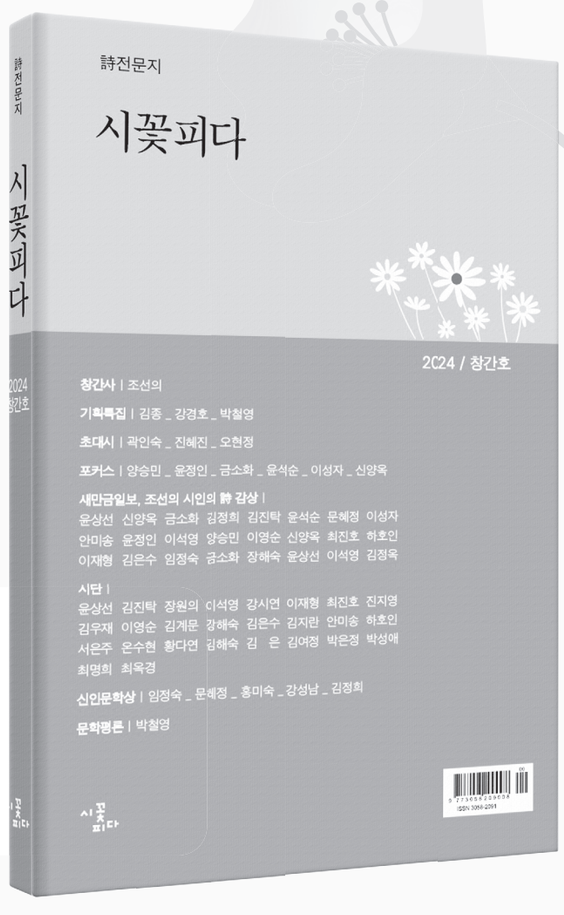
책을 옮긴 이는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석사와 박사를 획득한 육혜원 번역가다. 그는 지금까지 '왜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을까?', '보편주의' 등을 썼으며 '자본주의 역사', '니체', '미래전쟁' 등을 옮겼다.

〈이화북스·1만67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빛을 소환하다』『꽃 향기의 밀서』,『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